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OPP 및 CPP필름 수급 동향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Contents

- I. 서론
- II. OPP필름 수급 동향
- III. CPP필름 수급 동향
- IV. 결론

I. 서론

OPP(Oriented Polypropylene film) 필름은 1955년 이탈리아에서 발명되어 1970년대에 국산화가 개시되었다. 가볍고 투명하며 내약품성, 내열성, 내방습성이 뛰어난 특성으로 현재 연포장공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Poly propylene · PP)을 주원료로 용융 압출 및 냉각과정을 거쳐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해 제조한 필름을 OPP필름이라고 한다. 일반 PP필름을 일축 또는 이축으로 연신해 인장강도, 인장탄성율, 충격강도, 인장파열강도, 굴곡수명 등의 기계적 강도 및 내열성, 내한성, 투명성, 가스 차단성 등의 특성을 원래 필름에 비해 크게 향상 시킨 제품이다.

OPP필름은 플라스틱 제품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무색, 무취, 무미하고 투명성 및 광택도가 우수해 외포장재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주로 식품(스넥, 라면포장), 담배, 의류 포장 및 앨범 등의 범용적인 용도에 적합한 일반 포장재이며, 그 용도에 따라 후공정을 거치게 된다.

(사)한국포장협회는 OPP필름 주요공급사인 울촌화학(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필맥스, (주)화승케미칼을 대상으로 OPP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CPP필름 주요공급사인 (주)에스피씨팩, 울촌화학(주), (주)필맥스, (주)유상, 삼민화학(주)을 대상으로 CPP필름 생산수급 동향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II. OPP필름 수급 동향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삼영화학이 담배 포장용 OPP필름을 국산화하는데 첫 성공을 한 이후 초기 OPP필름 업계는 도시바, 미쓰비시 라인 등의 단층 라인을 일부 도입하였고 이후 Bruckner, Cellier 등의 다층라인이 도입 가동되고 있다. 국내 OPP필름 업계는 초기 단층라인에서 주로 일반 인쇄용 포장재의 베이스 필름을 생산하였으나 다층필름 라인의 도입으로 각종 별로 다양한 기능이 부여된 필름이 공급되기 시작했다. 포장용 필름 산업은 여타의 산업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생활 수준 향상에 힘입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해 왔다. 생활에 밀접한 식품 등 포장재 시장의 특성 및 산업재로서의 특성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포장 및 산업용 분

야에 사용되는 범용 제품의 경우 품질보다 가격이 중요한 요소로 현재 중국 및 태국, 인도 등의 저가 공세로 인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다.

초기 국내 OPP필름 시장은 내수 위주였으나 신규 기업의 시장 참여로 인해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상대적으로 수출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수출 지향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9년 말 환율이 떨어지고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OPP필름시장의 공급과잉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공세와 태국, 인도 등 동남아 수입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OPP필름 산업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국내 OPP필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 대응책 및 정부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OPP필름 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율촌화학(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필맥스, (주)화승케미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율촌화학(주)은 지난 30년간 고품질 그라비아인쇄, 정밀 Coating 등 두께편차 제로에 도전하는 필름 제조 전문기업이다. 율촌화학(주)의 BOPP, CPP, 수축필름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감독 아래 일반 식품포장에서부터 산업용 필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성, 친환경성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OPP필름의 경우 지난해 2개 라인에서 4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 공급량은 3만 7,000톤, 수출 공급량은 1,4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율촌화학(주) 관계자는 현 시장 동향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시상황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이로 인한 원부자재 가격인상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수입 물량 지속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동종 업계간 경쟁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 중”이라면서 “원가경쟁력이 낮은 업체는 하반기 가동 중단과 수입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2개 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총 3만톤의 생산능력으로 내수 2만

[표 1] OPP필름 수급 동향

(단위: 톤/년 · 2022년 기준)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능력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율촌화학(주) | 2 | 40,000 | 1,400 | 37,000 |
|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 2 | 30,000 | 1,000 | 29,000 |
| (주)필맥스 | 2 | 20,000 | 4,000 | 16,000 |
| (주)화승케미칼 | 2 | 15,000 | 5,000 | 10,000 |

9,000톤, 수출 1,000톤을 공급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관계자는 “2022년 설치·가동 중으로 BOPE/BOPP 하이브리드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유럽, 북미에서 대두되는 환경이슈 및 plastic tax, Regulation 등이 발효되고 단일소재의 필요성이 규제화 되면 BOPE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03년 5월 15일 설립된 (주)필맥스는 필름사업(포장자재류와 셀로판지 및 동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PP필름, CPP필름, 증착필름, 코팅필름 등이 주요 품목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에 공장을 두고 있다. (주)필맥스는 지난해 2개 라인의 생산능력이 총 2만톤이며, 이중 수출로 4,000톤, 내수로 1만 6,000톤을 공급했다. (주)화승케미칼은 3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2개 라인에서만 생산·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다. 내수와 수출로 각각 1만톤과 5,000톤을 공급했다. 2022년 대비 수요 감소에 따른 판매 감소로 현재 약 85~90% 수준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주)화승케미칼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포장(HMR 등), 테

이프 등의 수요 감소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전 품목의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필름의 증가로 물량 감소 및 가격다운 현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최근 수익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전망에 대해 “수요 감소 현상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공급적 측면에서 타업체들의 신규 라인 도입에 따른 물량 증가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가절감, 틈새시장 및 신규 제품 개발, 수출 물량 증대를 통해 물량 확보 및 수익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화승케미칼은 지난해 2월 OPP필름에 대해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ISCC 플러스)을 획득한 바 있다. ISCC플러스는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부합하는 국제인증 제도로, 제품 소재와 생산과정 등에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수단이다. (주)화승케미칼은 OPP필름 생산 시 엄격한 생산·품질 관리시스템을 통해 만든 재생수지(recycling resin)를 사용한다는 점을 공식 인증 받았다.

Ⅲ. CPP필름 수급 동향

국내 CPP(Casted Polypropylene Film) 필름 시장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주)에스피씨팩, 율촌화학(주), (주)필맥스, (주)유상, 삼민화학(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6년 12월 22일 설립된 (주)에스피씨팩은 합성수지 제조업 및 그라비아 인쇄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제조시설을 두고 있다. 4개 라인에서 1만 8,250톤의 생산능력을 보인 에스피씨팩은 지난해 실제 생산한 내수 공급량이 사내용 약 3,000톤, 시판용 약 8,000톤을 합쳐 총 1만 1,343톤을 기록했다. 그만큼 가동을 줄인 상태로 생산 추이를 따져보면 최근 5년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주)에스피씨팩이 보유한 4.0m 3layer(수량1), 3.2m 3layer(수량1), 2.2m Monolayer(수량2)를 합친 총 생산능력은 50톤/day이며, LINE Slitter(수량3)의 생산능력은 40톤/day이다.

(주)에스피씨팩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수요가 많지 않아 CPP 판매량이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 “CPP는 수입과 수출이 모두 쉽지 않은데 지난해 코로나19 특수로 마스크용에

[표 2] CPP필름 수급 동향

(단위: 톤/년 · 2022년 기준)

| 업체명 | 라인수 | 생산능력 | 공급량 | |
|----------|-----|--------|-------|--------|
| | | | 수출 | 내수 |
| (주)에스피씨팩 | 4 | 18,250 | - | 11,343 |
| 울촌화학(주) | 1 | 12,000 | 400 | 11,600 |
| (주)필맥스 | 3 | 14,400 | 2,880 | 11,520 |
| (주)유상 | 6 | 15,900 | 5,200 | 8,700 |
| 삼민화학(주) | 3 | 17,000 | - | 17,000 |

대거 들어가던 CPP물량 수요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원가에 근거해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도는 등 시장 가격 자체가 좋지 않다”고 분석했다.

울촌화학(주)은 포장, 필름, 판지 등 포장재 및 포장 관련 소재 사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Top3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CPP라인의 경우 이물검사 장치와 필름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JUMBO ROLL 자전 시스템은 물론, Roll 추적 시스템까지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첨단 장치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울촌화학(주)은 평택 포승 공장에 설치된 CPP라인(1개)을 통해 1만 8,250톤의 생산능력을 갖췄으며, 내수 1만 1,600톤, 수출 400톤을 각각 공급하고 있다.

울촌화학(주) 관계자는 “오랜 포장재 제조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접목해 고품질의 기능성 포장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포장재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납기와 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원가 혁신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및 국제시장 점유율 증대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필맥스는 3개 라인에서 총 1만 4,400톤의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수출과 내수는 각각 2,880톤, 1만 1,520톤을 공급했다. 이어 (주)유상은 6개라인 총1만 5,900톤 중 수출 5,200톤, 내수 8,700톤을 공급했으며 삼민화학(주)은 3개 라인에서 총 1만 7,000톤이 모두 내수로 공급됐다.

IV. 결론

포장산업은 대표적인 소비재 산업으로써 식품포장용 포장, 세제류 및 화장품의 리필팩, 의약품 및 산업용 포장지, 치약 등의 포장용 튜브와 같은 생활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다.

포장산업은 식품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식품산업은 국내 소비경제의 상황과 경기 전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즉 포장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인구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대표적 소비재인 필름 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단순한 형태의 필름 제품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고품질, 고기능성의 포장재와 전자소재를 요구하는 형태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높은 기술력과 빠른 기술 적용력을 가진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다.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고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시장을 리드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제품 품질 유지, 선도적 제품 및 기술의 개발, 시장을 주도하는 신기술 확보, 생산체계 효율성 극대화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장의 한계성이 있는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 일본 등 세계시장을 위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전략거점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세계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수준을 높여 매출 성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 [GW]